

문화재연구 국제교류현황과 과제 : 러시아 - 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

이 헌 종*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지역연구 |
| II. 학술대회 | VI. 러시아고고학의 최근 경향 |
| III. 답사 및 발굴 | VII. 과 제 - 몇가지 제언 |
| IV. 학문적 접근 | |

I. 머 리 말

우리 나라가 러시아와 고고학분야에서 처음으로 국제교류를 시작한 것은 국교수교 이전인 1990년 롯데백화점에서 전시된 “맘모스전”과 이식 고분에서 출토된 “황금 옷을 입은 인간전”이 전시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방문한 데레비안코 소장(A.P. Derevianko:당시 소련과학원 시베리아분소 역사·언어·철학 연구소)이 국립박물관에서 강연을 하면서 한국 고고학자들과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해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에서 있었던 국제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한·러 고고학분야의 교류가 본격화되었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약 10년간 한국과 러시아와의 고고학교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양상은 대단히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러 고고학자들은 문호가 개방되면서 교류 초기부터 답사, 학술대회, 공동발굴구상, 국립기관간 교류협정, 학자교류, 유학생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류를 시작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고고학연구지역에 대한 학자적 관심과 민족의 기원문제를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으로부터 찾으려는 고고학계의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성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993년 수추(Suchu)섬 유적에서 메드베데프(V.E.Medvedev)는 한

*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국과 러시아와의 고고학 교류에 대하여 “짧은 기간이었으나 한국의 고고학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시베리아의 고고학을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국내 학자들의 적극적인 교류 태도는 러시아학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러 문화재 연구와 관련된 교류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1993년 11월에 개최된 유네스코 초청 국제학술대회에 이례적으로 한국측 인사 초청에 황용훈 교수와 최몽룡 교수 등 2인이 초청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아무르강 하류지역 발굴조사에 관해서는 수년간 우리 나라의 발굴기관과 공동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왔다.

이렇듯 지난 10년 동안 우리 나라와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서로 학문적인 관계의 증진 뿐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의 형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것은 양국의 고고학자들간 합의한 약속을 존중하여 왔던 것이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다.

러시아학자들은 최근 들어 양국의 경제적인 위기로 일시적이거나 발굴조사를 비롯한 여러 학문적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학·민족학 연구소(이후 고고학·민족학연구소로 명기하고자 한다)는 미국과 공동으로 몽고 구석기유적을 발굴하였고, 1998년도에는 다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1999년도에는 21세기를 준비하는 “The Archaeology, Anthropology and Ethnography in Eurasia”라는 국제적인 잡지를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고고학계는 그들의 이러한 잠재력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고고학 발전에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0년간 맺어온 우호적인 문화재연구 교류를 생각해 보고 그 동안 미흡했거나 잘못했던 결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러 고고학자들의 교류는 개인의 친분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긴밀하게 교류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류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술할 대부분의 학자들은 각 장마다 언급되어야 할만큼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지면상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중요한 내용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들이 빠질 수 있을 지 모른다.(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필자의 무지에서 오는 것이므로 질정을 바란다.)

II. 학술대회

문화재연구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직접적인 교류는 각 나라에서 발굴한 성과를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 동안 체제의 규제로 서로 공동으로 연구하지 못했던 시기를 지나 1990년 여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개최된 “Chronostratigraphy of the Paleolithic in North, Central, East Asia and America”라는 제목의 국제학술대회에 고 황용훈 교수(전 경희대), 정영화 교수(영남대), 이용조 교수(충북대), 최무장 교수(건국대), 이선복 교수(서울대) 등 구석기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 후 1992년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1994년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1995년에는 울란우데에서, 1998년에는 다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큰 국제학술대회가 계속 개최되었다. 이 모든 학술대회에는 국내 저명한 학자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문화재연구소 주체로 1992년부터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동북아시아의 고고학 문제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 시대별로 나눠 다루었는데 4회에 걸쳐 러시아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1992년 이리에서 원광대학교와 모스크바대학교 주체로 “東北亞 古代文化의 源流와 展開”라는 제목 하에 열린 국제 학술대회도 동북아시아의 청동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대회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연구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이용조 교수(충북대)는 “수양개와 그 이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년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젊은 소장학자들이 국내에서 논문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러시아의 새로운 연구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모든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고대학회에서 일회적이기는 했지만 1995년 데레비안코 소장(고고학·민족학연구소)을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학자들은 주로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열릴 때 우리 나라를 방문했었다. 산발적이긴 하였으나 이미 한국을 다녀간 시베리아와 극동의 저명한 학자들만 하여도 데레비안코 소장을 비롯하여 게르만 메드베데프, 비탈리 메드베데프, 이브게니야 데레비안코, 멀러딘, 플로시막, 샤프쿠노프, 브라잔스키, 드라스도프, 치키쉐바, 솔로비에프, 볼코프, 코노넨코, 제닌, 노비코프 등 적지 않은 숫자가 된다.

이러한 학술적인 교류가 양국의 문화재연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러시아 학자 중 한국의 고고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III. 답사 및 발굴

한·러교류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학술대회를 통한 교류와 더불어 답사일 것이다. 러시아지역을 답사한 국내 학자들이 많이 있기에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몇 가지 것만 상기하고자 한다. 황용훈 교수는 1990년 여름 알타이 답사를 계기로 유럽에서 수학할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답사를 1996년까지 계속한 바 있다. 또한 그의 주요 관심사인 “동북아시아의 암각화”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러 고고학교류에 있어서 황용훈 교수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중견학자들 간의 관계증진과 유학생 교환 등 연구인력의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학문은 내외적인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국내학계와 고고학·민족학연구소의 고고학자들과 관계를 한층 강화시켰다.

김정배 교수(현 고려대 총장)를 단장으로 한 대륙연구소지원 한·러 발해유적공동발굴조사단은 1992년, 1993년 두 해에 걸쳐 연해주에 위치한 꼬르사꼬프카, 남우수리스끄, 크라스끼 노유적을 발굴하였다. 이것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한 러시아지역 발굴이다. 이 발굴과정에서 한·러 교류 뿐 아니라 북한학자들과의 교류도 있어 의미 있는 발굴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2년 국내의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 문화재연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에 의하여 문화재연구소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상호 양 연구소를 방문하여 학문적인 교류를 해왔다. 또한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인적교류 뿐 아니라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러시아고고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결실은 당시 시베리아고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찍 부터 관심을 보인 조유전 소장의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의 노력은 결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9년도에 개소 30주년을 맞이하여 오랫동안 맺어온 러시아 고고학계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 국제 발굴계획에 대한 임시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러시아와의 공동발굴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발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나라도 동북아시아의 문화재연구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적 입장에 서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더불어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밖에 국내에서 러시아의 국립기관과 교류협정을 맺은 곳이 또 한 곳이 있다.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현 중원문화연구소)는 극동분소 역사, 언어, 민족학연구소와 교류협정을 맺은 바 있다. 최근 왕성하게 러시아지역을 답사하는 암각화학회에서는 1999년에 남부 시베리아의 여러 지점의 암각화유적을 답사한 바 있고, 고려문화재단에서도 국내 학자들이 러시아의 여러 지역을 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IV. 학문적 접근

국교수교 이후 왕성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실질적인 학술교류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러시아 고고학을 보다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손병헌 교수(성균관대)는 유학시절부터 러시아고고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1992년~1993년에 걸쳐 직접 1년 동안 고고학·민족학연구소에서 교환 교수로 봉직하였다. 그 기간동안 러시아과학원 소속 시베리아분소, 모스크바분소, 상 삐제르부르크 분소의 고고학연구소를 방문 연구하였다.

최몽룡 교수(서울대)는 1991년 7월 처음 시베리아 고고학 유적을 답사한 후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답사를 6차례 한 바 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한국상고사학보를 통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연구한 러시아학자들의 논문을 발표하게 하였고 세계학계에 러시아고고학의 현황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그는 답사한 자료를 모아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를 출간하고, 그 동안 러시아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를 망라한 논문을 포함한 『러시아의 고고학』을 공동 편저하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였다. 그는 한·러 문화재교류에 있어서 러시아의 다양한 물질문화 연구성과를 국내외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된다.

지난 10년간 여러 학자들은 소장학자들이 직접 러시아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상 삐제르부르크 물질문화사연구소의 장석호(계명대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고고학분과에서 수학한 정석배(국립문화재연구소),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학·민족학연구소의 이현종(목포대), 강인욱(박사과정) 등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였거나 과정 중에 있는 학자가 4명에 이른다. 이들은 직접 현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저서와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 동안 발표된 학술적인 저서나 논문은 국내 학자들에게 부분적이거나 러시아의 고고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우리 민족의 기원지로서 상징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이 지역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 지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도 필요했다. “맘모스전”, “황금 옷을 입은 인간전”, “스키타이의 황금전”, “알타이문명전” 등의 전시는 고고학계 일반과 대중들에게 러시아의 고고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한편 국내 방송사에서 신라의 금관과 연관된 스키타이의 황금문화, 황남대총, 알타이의 암각화 및 몽골로이드 루트 등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대중화 작업도 러시아고고학을 이해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된다.

V. 지역연구

시베리아 고고학은 지역별로 크게 서부시베리아(우랄로 부터 예니세이강의 왼쪽 강가까지), 남부시베리아(사얀-알타이, 하카시, 예니세이유역 오른쪽 강가), 동부시베리아(혹은 중부시베리아 : 프리바이칼-앙가라강 유역, 자바이칼-치따), 극동지역(아무르, 프리모리에)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으로 마가단, 사할린, 야쿠츠크 등 몇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시베리아 고고학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은 주로 삼림-평원지대와 평원지대를 중심으로 횡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서부시베리아와 예니세이, 아무르강 유역 등의 일부 타이가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유럽의 여러 연구소에서 시베리아지역의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는데 대부분 알타이, 바이칼, 연해주 등에 집중되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공동발굴조사가 이루어질텐데, 일단은 러시아학자들이 연구해온 부분 중 우리의 관심지역과 연관된 지역들에 대한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주목을 받아온 곳은 알타이지역 특히 우코크지역, 락바(Tyva : 전 튜바), 바이칼지역, 아무르연안, 연해주 등이다. 이 지역들은 우리 나라 고고학적 성과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코크와 락바지역은 초기 실크로드와 신라의 기원문제와 연관된 문제를 다룰 때 거론되는 지역이며, 바이칼지역과 아무르연안은 신석기문화와 우리민족의 기원문제, 연해주지역은 후기구석기 최말기의 문화변동, 발해유적 등과 연관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러시아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나 우리 나라 문화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동북아시아의 고고학을 함께 연구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기인한다. 특히 세계학계에 아직 이 지역의 고고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 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가 잘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주역들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세계학계에 이 지역의 문화재를 알려야 할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일본의 고고학계에서 기울여 온 것처럼 우리 나라도 다른 외국의 유망한 문화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주변의 국가들 특히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점거했던 선사시대 사람들과 대유목제국들의 연구도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선사시대의 문화공동체적 입장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의 선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중국중심으로 이해되었던 고대사 분야도 유라시아 대륙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VI. 러시아고고학의 최근 경향

앞에서 지난 10년간 한·러 문화재연구 교류현황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러시아고고학이 처한 입장과 최근 연구경향을 아는 것으로부터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난 1998년 여름, 오클라드니코프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며 국제학술대회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학·민족학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의 의의는 20세기의 시베리아고고학을 정리하며 21세기로 진입하면서 겪을 학문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었다.

시베리아고고학은 20세기의 '발견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전성기를 맞은 시베리아고고학은 기존의 단순한 발견의 시대로부터 벗어나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겪은 정치·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는 시베리아고고학의 21세기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학문적인 새로운 다양성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연구여건의 퇴보로 인한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고고학계에서 정기적으로 5월말부터면 시작되었던 발굴이 상당수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도 자주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변화는 소수민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러시아고고학자들이 연구했던 지역은 현재 소수민족들이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 예를 들자면 파지리크 고분문화의 산실인 알타이공화국, 시베리아 청동기문화의 산실인 미누신스크분지와 카라숙문화가 관련이 있는 하카시공화국, 바이칼지역과 연관된 부리야트공화국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각 공화국의 고고학자들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시베리아의 여러 연구소들이 연구할 자원이 줄어들거나 통제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알타이자치공화국을 들 수 있다. 노보시비르스크 고고학·민족학연구소에서 1991년부터 시작한 알타이의 대대적인 조사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알타이자치공화국정부는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우코크(Ukok)지역을 포함한 코쉬-아가치(Kosh-Agach) 郡을 출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알타이자치공화국의 엄격한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고학적 발굴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정부차원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조직적으로 발굴을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1997년의 경우 알타이자치공화국의 정식허가를 받은 벨기에고고학팀의 고분발굴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취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고고학자들에게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즉 러시아고고학자들이 그 동

안 등한시했던 타이가지역이나 산악지대 등 새로운 연구지역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러시아고고학자들이 꾸준한 설득을 통해 자치공화국들에게 관광수입이나 유물 전시를 통한 자원획득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자발적인 연구나 관련 노하우가 없는 자치공화국들은 오히려 발굴을 더 러시아에 의존할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발굴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하는데 외국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공동연구와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 세계의 고고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그 동안 단순한 용어에서부터, 개념정리, 이론적 접근, 물질문화 등 서방의 여러 나라의 관심사였던 러시아의 학문적인 영역이 세계고고학계에 포함되면서 풍부한 고고학적 통합과정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과를 러시아학자들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최근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수륜보정학연구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파지릭고분 목관의 나이트연구인데, 스위스고고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몽고지역에 대한 구석기발굴이 미국의 몽고구석기원정단과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의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환경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그들이 노력해 온 문화재연구를 원하는 만큼 지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잘 이겨낸다면 결과적으로 단순한 러시아고고학의 재도약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세계고고학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충분한 고고학자료를 가지고 이론을 세워야하는 서방의 이론 고고학자들에게 새로운 역사적 접근을 가능케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이 먼저인가 아니면 충분한 물질문화가 먼저인가? 만일 충분한 물질문화가 바탕이 된다면 고고학이론은 보다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고고학자가 지향하는 21세기 시베리아고고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난 1998년 여름 국제학술대회에서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학·민족학연구소 데레비안코소장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21세기의 고고학은 첫째, 각 전공분야 마다 필요한 다양한 인접과학과의 종합연구(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이며, 둘째, 고고학 유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질학, 층서학적 입장의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며, 셋째, 기존의 많은 문화나 연대기, 편년 등에 대한 전폭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구석기연구에 국한된 말이지만 물질문화의 축적을 통한 연구방법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중요한 발굴에서는 탄소연대, 성분분석 등 기존에 행해지던 인접과학의 연구 이외에 토양학, 생물학, 유전학, 보존처리학 등 훨씬 더 다양한 분석들이 행해지고 있다. 예컨대

1998년 겨울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출판 예정인 '미이라와 그 현상'에는 고고학적 발굴자료에서 얻어낸 여러 자료를 인접과학을 동원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노보시비르스크 고고학·민족학연구소의 노력은, 첫번째로 그 과학단지의 시스템에 기인한다.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에 속한 52개의 연구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공동연구를 진행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로는 고고학적 대상이 '인간의 발자취'에서 '각 자연환경(Eco-system)에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접과학의 연구는 고고학적 자료가 단순히 유적, 유물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여러 생태학적 환경을 분석하고 인간이 포함된 생태환경을 이해할 때 비로서 고고학적인 복원이 좀더 충실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인접과학의 다양한 방면의 연구는 자칫하면 한 부문만의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편향적인 결과에 따른 해석의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러 가지 결과의 분석결과가 종합되면서 고고학적 자료는 그 유의성에 좀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Ⅶ. 과 제 - 몇가지 제언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는 괄목할만하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앞으로 문화재연구를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교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목해야할 것이 있다.

첫째, 민족의 기원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타학문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러시아고고학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기원문제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단순한 고고학조사 이상 다양한 학문과의 교류를 시도하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민속학, 언어학, 유전공학 등이다. 러시아에는 아직까지도 부시맨과 같이 과거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그 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많은 고고학적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족의 기원문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고고학을 공동연구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시아의 한 일원이면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과 수많은 문화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문화의 한 주체로서 넓은 의미에서 동북아시아의 고고학을 함께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세계학계에 아직 이 지역의 고고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잘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유망한 문화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 일본의 고고학계에서 기울여 온 것처럼 일단 우리 주변의 국가들 특히 러시아의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점거했던 선사문화와 유목제국들의 연구도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이

러한 연구는 중국중심으로 이해되었던 고대사 분야도 유라시아 대륙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위의 과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우선 국가연구기관 및 관심있어 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굴이 진행된다면 단순히 발굴결과가 어떻다는 것 이상으로 그 분야나 지역에 관심을 갖는 젊은 학자들이 생기게 되므로 발굴은 현상적인 것 이상 미래지향적인 연구방법이다. 그래서 발굴이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러시아는 정치, 경제적인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러시아의 중요한 문화재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발굴결과와 연구결과는 국제학회에 꼭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과학원에서는 “The Archaeology, Anthropology and Ethnography in Eurasia”라는 세계적인 논문집을 구상하는데 한국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고고학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한국상고사학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자간의 교류와 학생교류를 지속해야 한다. 첫번째로 언급했던 문제와 연관해서 학자간의 왕성한 교류는 새로운 자료를 접하게 되므로 우리 나라 문화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간 수명의 유학생이 학위를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섯째, 국가기관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컨텐츠산업이 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먼저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 멀리 서방의 문화와 우리를 차별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아는 방법은 학문적인 교류가 첩경이다. 하지만 그러한 연구에 참여한 소장학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이러한 작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국가기관에서는 이러한 재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의 문화산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일곱째, 러시아와 본격적인 문화재연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관련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문화재연구와 연관된 각종 공동조사 및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